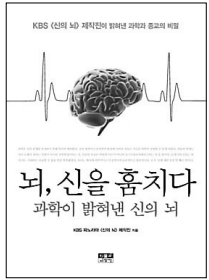


과학이 밝혀낸 신과 종교에 대한 여행

뇌, 신을 훑는다

KBS파노라마 제작진 지음 | 인물과사상사 펴냄 1만 3천원



종교와 신에 대한 오래된 질문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이는 인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신을 만났거나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유명인사도 적지 않다. 예컨대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고흐, 노벨, 나폴레옹, 시저, 도스토옙스키, 모파상, 단테, 파스칼 등이 그런 경우다. 놀랍게도 이들은 신을 만났거나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스칼은 31세 때였던 1654년 11월의 어느 밤, 불꽃같은 성령 체험을 했다면서 이때의 체험을 약 600자 분량의 시 형태로 앙피지에 기록하기까지 했다.

아예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2012년 10월 8일자 <뉴스위크>는 ‘천국은 진짜다(Heaven is Real)’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본 일렉산더라는 하버드대학 신경외과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7일 동안 그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그 후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신의 무한하고 강력한 힘을 믿게 되었다. 그의 말은 진짜

일까?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신의 목소리를 듣거나 신을 만났던 것일까? 더군다나 그는 논리적 이성과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던 뇌과학 전문가였다.

21세기에도 왜 종교는 변성하는가? 21세기의 인류는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졌다. 인터넷 쇼핑을 해도 가격과 성능을 면밀히 따진 후 구매를 확정하고, 운전할 때도 목적지까지의 통행량과 최단거리를 분석하고, 아니면 아예 그런 기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을 권 후에야 자동차를 운전한다. 이렇게 우리는 매사에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신과 종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도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신과 종교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4,000여 개의 종교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종교를 갖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21세기에 왜 신을 믿는지, 비이성적·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믿음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와 과학 넘나들며 ‘신의 거처’를 찾다 지난 300여 년 동안,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과거

신의 영역이나 초자연적 현상에 속하던 것들도 지금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천둥과 번개는 신이 노해서 내리는 천벌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는 것,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것 등 말이다. 그렇다면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일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그동안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은 신의 실재를 밝히기 위해 가장 노력해온 게 바로 과학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의 말처럼 ‘과학은 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확실하게 제시’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천여 개 종교 존재 지난해 4월 KBS TV다큐서 방영 내용

급기야 최첨단 과학은 사라진 신의 거처까지 찾아냈다. 물론 그곳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바로 인간의 ‘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은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과학이 많은 것을 밝혀내긴 했지만 아직 신과 종교의 많은 부분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전히 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와 과학의 영역을 넘나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의 질문을 통해 신과 종교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파스칼의 내기 : “신을 믿는 게 이익이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 신을 믿

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 지금부터 350여 년 전,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제안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다. 파스칼의 내기는 인생은 물론 사후세계까지 건 대단한 도박이었다. 신을 믿었는데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천국에 가게 된다.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이 있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 신이 없다면 양쪽 다 아무 이익이 없다. 이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을 통해 결국 파스칼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다.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다.”

물론 파스칼의 논리에는 한계도 많고 수많은 변수를 무시해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신이 자신의 존재 증명을 허락하지 않는 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것뿐이라는 점에서 파스칼의 논리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독자들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가운데 독자들은 어느 쪽에 거시겠는가? 파스칼의 내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과학이 밝혀낸 신과 종교에 대한 여행을 떠나보자.

이 책은 2014년 4월에 방송된 KBS 파노라마 <신의 뇌>를 바탕으로 쓰였다. <신의 뇌>는 2부작으로 방송이 나갔지만, 사실 4부작으로 기획된 다큐멘터리였다. 방송하지 못한 나머지 2부작 분량은 책상 한쪽 구석에 밀쳐두었고, 책 출간이 결정되면서 애초 4부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까지 모두 다 이 책에 담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비유 절제 대신 대상 움직임 시어로 포착

우리들의 마지막얼굴

문태준 지음 | 창비 펴냄 | 8천원



우리 시단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 손꼽히는 문태준 시인(사진)의 여섯번째 시집 <우리들의 마지막얼굴>이 나왔다. 불교적 사유가 도드라진 시편들로 주목을 받은 <먼 곳>(창비 2012) 이후 3년 만에 펴낸 이 시집에서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대상과 세계에게 솔직한 말을 걸고 싶었다. 둘러대지 말고 짧게 선명하게”라고 밝혔듯이 “되도록 비유를 절제하면서 세계와 대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의 심심(甚深)한 묘사와 나열에 집중”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응송같은 성찰이 깃든 진솔한 언어로 세상과 사물에게 건네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가슴을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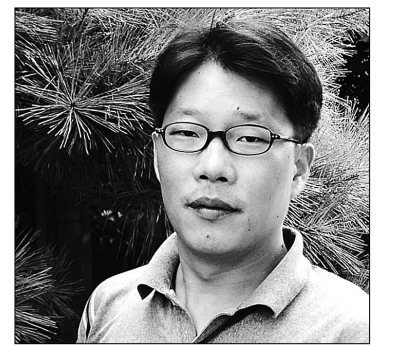
2014년 서정시학작품상 수상작 ‘봄바람이 불어서’를 비롯해 모두 61편의 작품이 실린 이 시집은 비교적 짧은 시편들로 이뤄져 두께는 얇으나 감동은 더할 나위 없이 크고 넓고 깊다. 등단 이후 새 시집을 낼 때마다 평단과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아왔던바, 이 시집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백화(百花)가 지는 날 마애불을 보고 왔습니다 마애불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눈두덩과 눈, 콧부리와 볼, 입술과 인중, 목과 턱선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안면의 윤곽이 얇은 미소처럼 넓적하게 퍼져 돌 위에 흐릿하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시(如是)>중에서 문태준의 시는 따뜻하고 편안하다. 그의 시는 세계의 대상들을 넘나들며 마음으로 포용하며 우리를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이끈다.

시인은 사물에 동화되거나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서 “몸을 굽혀 균형을 맞추고 삶의 내밀한 풍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세롭고 다양한 말문을 연다.

이 곱담한 ‘용서’의 문법을 문학평론가 최현식은 해설에서 “여시(如是)의 문법”이라 이르며 “세계-자연-신에 대한 자아의 순환적 자연(差延)을 전제한 ‘서로 주체’와 ‘서로 타자’의 형식”이라고 평한다. 시 쓰기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향기이며 약취된 시간을 건축하는 일로 여기는 시인은 “스스로 기뻐하는 높이에 달린” “한알의/영혼” 같은 존재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청빈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

비록 “한영애의 웅색한 세계”이지만 세상을 긍정의 시선으로 관조하는 시인은 죽음을 마주 대하는 순간에도 감정의 동



요 없이 소멸의 과정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묘사한다. 죽음을 평범해지고 희미해지는 일이라고 무심한 듯 말하는 시인은 무덤 위에 풀이 돋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삶의 원리 혹은 존재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렇듯 시인은 죽음을 생의 종결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럽고 섬세하고 기다리나 홀쭉한 햇살이 쏟아지는 ‘지금-여기’에서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성찰하는 자리로 삼는다. 그리하여 죽음은 생의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번 시집에는 여러편의 연작시가 눈길을 끈다. 특히 제 3부를 이루는 ‘드로잉’ 연작은 이 시집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로 주목할 만하다. 시인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뒤범벅된 녹녹한 삶의 필진한 풍경을 감성적이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다. “애소한 그늘”과 “촉촉한 음지”서 “스스로 말라가는, 아물아가는 환부”를 어루

‘봄바람이 불어서’ 등 61편 수록 섬세하고 감성적인 필치로 그려내

만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는 “아픈 혼”들의 곱담한 초상을 따뜻한 연민과 동정의 눈길로 감싸안으며 시인은 현실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어 존재의 의미와 삶의 비의를 찾는다. 시인은 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새장의 빛장을 풀고 청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사물과 사물, 생명과 생명 사이의 관계를 눈여겨보기도 한다. 시인은 ‘여시(如是)의 세계’에서는 세상 만물이 가치의 차이로 함부로 무일 수 없는 자율적 세계임을 통찰하고, 사물과 사물을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둠, 실체와 허상 등과 같은 이분법으로 구분 짓지 않고 유연하게 생존하는 하나의 결합체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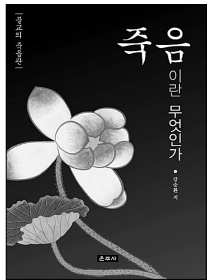
“사이”는 있으되 이쪽과 저쪽에 있는 “백중환 돌을 갈라놓지는 않는다”는 깨달음 속에서 시인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에게 강박만큼 여지가 남아 있는 공감의 세계, ‘대치’함으로써 ‘사이’를 살아가는 화해와 공존이 어우러지는 크고 둥근 세상의 아름다움을 소망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

죽음이란 무엇인가

강승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죽음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절대평등의 이치다. 때문에 의연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인류는 죽음을 피하는, 혹은 늦춰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래서 궁극한 것들이 너무 많다. 과연 죽음은 과연 공포스럽기만 한 것일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죽을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등등.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근원적 고민 중 하나인 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선현들이 이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왔다. 하지만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어느 종교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접근하는데, 이는 불교가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불교의 죽음관을 다룬다. 즉 불교서 보는,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죽음에 대한 인식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삶의 문제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생사관’이기도 하다.

저자에게 죽음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이다. 하긴, ‘마음’은 불교의 핵심 키워드다. 저자는 마음을 작용, 행태, 본질의 셋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음의 작용은

의식, 행태는 말나식(사량식), 본질은 아뢰야식이며, 이 중 죽음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아뢰야식이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육체는 소멸하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은 마음인데, 그 중에서도 아뢰야식만이 끝까지 남아 미래를 결정하고 함께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목표는 열반, 즉 해탈이다. 이것은 윤회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남을 말한 다. 여섯 세계로의 윤회를 그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최상의 자세는 당연히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공(空)’의 체득에 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두가 헛것(幻)이고, 가짜(假)임을 깨달을 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최상이다. 최상이 아니라면 차선으로라도, 즉 천상

이나 인간세상에 태어나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이다. 선인 선과(善人善果) 악인악과(惡人惡果), 즉 선의 종자를 많이 심으면 다음 세상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의 종자를 많이 심으면 다음 세상서 고통을 받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죽음이 삶의 연장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삶이 탐진치 삼독에 매여 있으면 죽음도, 그리고 다음 생도 번뇌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수행과 선업을 통해 아뢰야식을 맑게 하면 죽음도, 다음 생도 청정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다. 나이가 삶이 자재하면 죽음도 자재하고, 다음 생도 자재할 수 있다. 바로 해탈이다.

이 책이 죽음의 본질과 삶의 실상에 대해 통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생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치 이야기를 하듯 풀어놓는 저자 특유의 글쓰기는, 자칫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편안하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김주일 기자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살은 고가 아니다

10,000원 A5/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살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독송문)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